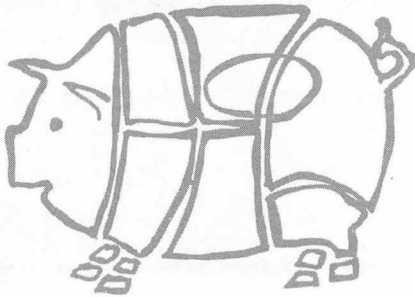


돼지의 개량목표



박 영 일
(서울대 농대 교수)

돼지의 개량 사업을 수행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개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개량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개량사업 수행에 의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우선 개량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돼지 개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돼지의 형질을 인간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도록 변화시킴으로써, 돼지 사육에 의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 돼지에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있어 개량의 대상이 되는 형질은 복당 산자수, 복당 이유두수, 이유시 체중, 이유후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율, 도체 품질, 강건성, 체형 등이다.

복당 산자수는 어미 돼지가 낳은 한배 새끼 돼지의 수를 말하며, 사산율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므로 복당 생존 자돈수를 많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개량목표로 되어 있다.

이유후 증체율이 높으면 사료효율이 개선되

고 사료비가 절감되며 시장출하체중 도달일수가 단축되어 자본의 회수가 빨라지는 등 이로온 점이 많으므로, 이유후 증체율을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개량목표이다. 또한 사료 요구율을 개선하는 것도 양돈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므로 사료 요구율의 개량도 중요한 개량목표이다.

도체 품질의 개량도 중요한 개량 목표로 되어 있는데, 도체의 품질은 등지방층 두께, 배장근 단면적, 도체장, 도체율, 정육율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다. 근년에 와서 초음파 등지방 측정기가 개발·보급되어 생돈에 대한 등지방 두께의 측정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도체 품질의 개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미 돼지의 젖꼭지 수가 한배새끼 수보다 적을 때는 새끼 돼지를 포육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젖꼭지 수를 많게 하는 것도 개량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체의 강

“

과거에는 돼지의 모색이나 품종의 특징과 같은 형질을 주요 개량목표로 설정했으나, 최근에는 능력위주의 돼지를 개량

”

건성, 유전적 결함의 제거, 어미 돼지의 비유능력 개량, 체형의 개량 등도 중요한 개량목표가 될 수 있다.

돼지의 개량 목표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 북미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 중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 함량이 높은 음식이 필요하였던 시대에는 지방층이 두터운 라이드형 체형의 돼지로 개량하였지만, 1925년 이후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변화되어 육용형 돼지로 개량하게 되었다.

돼지의 개량 목표는 종돈장이나 품종 또는 계통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종돈장에서 가지고 있는 요크셔종은 지방층이 너무 두텁다고 인정될 때, 이 종돈장의 요크셔종은 지방층이 얇은 돼지로 개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량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돼지의 모색이나 품종의 특징과 같은 형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의 개량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년에 와서는 모색이나 외모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돼지를 개량하고 있다.

만약 어느 품종을 개량할 때 모색을 그 품종의 가장 중요한 개량 목표로 설정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 품종은 능력 개량의 면에서 다른 품종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R. U. Weber씨와 John Schulte 씨에 의하여 육종된 헤어퍼드(Herford)종 돼지는 그 모색이 마치 육우의 헤어퍼드종과 유사하여

이 특징이 이 품종의 상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품종의 어느 개체가 순종으로 등록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얼굴의 4/5 이상이 백색이고 얼굴 이외의 부분은 최소한 2/3 이상이 적색이어야 하며, 네다리중 세개 이상은 적어도 발굽 위 1인치까지는 백색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품종에서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종돈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품종은 능력의 면에서 다른 품종에 비하여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능력의 차이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보급이 더욱 저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상당 수의 햄프셔종이 도입되어 사육되고 있는데, 이 품종은 비교적 우수한 품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햄프셔종은 흑색 바탕에 어깨와 앞다리에 흰 띠를 두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백만불 짜리 상표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능력은 우수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종돈으로 쓰이지 못하는 개체가 많이 생긴다면 햄프셔종도 헤어퍼드종과 같이 소수 품종으로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양돈 선진국에서는 모색이나 외모와 관련된 각 품종의 실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능력이 우수한 개체가 실격되는 경우가 많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